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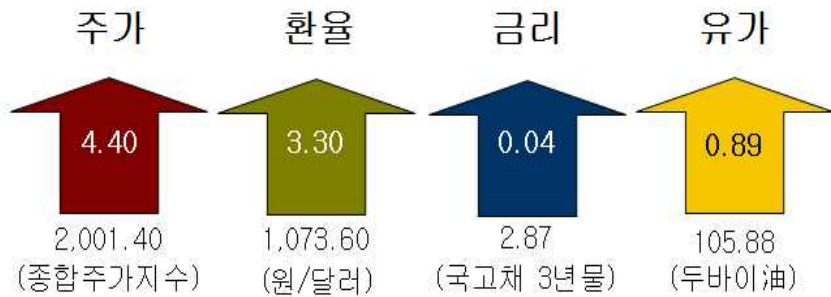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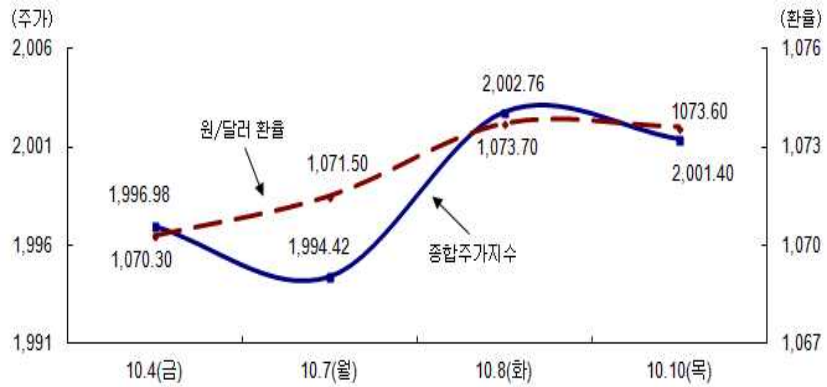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설비투자 절반이 수입산에 잠식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0.4~10.10)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3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성 :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Executive Summary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 개요

자본재란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을 의미한다. 자본재는 그 생산 장소에 따라 국산자본재와 수입자본재로 구분되는데, 최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본재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비투자 자본재'에 대해서 수입의존도(수입재수요/국내수요)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전체 설비투자 자본재) 장기적으로 보면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60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1970년 75%까지 급상승하였다. 이후 자본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여 최근 40% 내외에서 횡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기간을 보면 수입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7% 내외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국내수요는 116.3조원이며 이중 64.2조원이 국산재, 52.1조원이 수입재로 충당되어 수입의존도는 44.8%를 기록하고 있다.

(4대 부문별) 설비투자 자본재의 하위 4대 부문(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별 수입의존도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정밀기계이다.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는 68.2%이며, 다음으로 일반기계(49.8%), 전기전자기계(46.1%), 수송기계(29.3%)의 순이다. 2005년 이후 추세적으로 보면 수송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네 부문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5~2011년의 수입의존도 변화를 보면 수송기계가 분석 대상 기간중 15.1%p로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전기·전자기계도 14.9%p의 상승폭을 보였다. 일반기계의 수입의존도는 7.0%p 상승하였으나 정밀기계는 오히려 8.5%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의존도 현황을 보면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현재 무역통계에서 포착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국은 중국이며 그 비중은 25.1%이다. 특히,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일본(22.5% 비중), 미국(13.5% 비중), 독일(11.1% 비중)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2년 현재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 비중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은 일반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독일로부터는 수송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설비투자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설비투자 자본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기술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둘째, 기업 규모 대형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시장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첨단 기계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1. 개 요

○ 연구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에서는 자본재 중에서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¹⁾
 - 산업 생산 수단인 설비투자 자본재를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환율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설비투자 자본재의 주된 생산 업종인 기계산업은 고부가·고기술 산업으로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주력 산업임
- 이를 위해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변화 분석, 부문별 비교, 수입대상국별 수입 비중 현황 등을 확인해 보고 국내 자본재 산업의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보고자 함

○ 자본재의 정의 및 종류

- (자본재의 정의) 자본재란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을 의미
 - 자본재는 공작기계 등과 같은 공장의 기계, 토지를 제외한 건축구조물,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서비스 등을 포괄함
 - 한편, 자본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간재와 소비재가 있는데, 중간재는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원·부자재, 소비재는 소비지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의미함
- (자본재의 생산장소별 종류) 자본재는 그 생산 장소에 따라 국산자본재와 수입자본재로 구분
 - 국내에서 필요한 자본재 수요(국내 자본재 수요)는 국내에서 제작된 자본재인 '국산자본재'와,
 - 해외에서 만들어져 수입되어 국내수요에 충족되는 '수입자본재'로 구분될 수 있음

1) 2011년 현재 전체 자본재의 수입규모 53.7조원중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규모가 52.1조원으로 96.7%의 비중을 차지 (「별첨 1」 자본재 용도별 수입규모 비교」 참조.)

- (자본재의 용도별 종류) 자본재를 용도별 구분할 경우 설비투자 자본재, 건설투자 자본재, 무형고정자산투자 자본재로 구분
 - 설비투자 자본재는 공장의 기계장비, 운송장비, 전기장치 등 생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함
 - 건설투자 자본재는 건축물, 교통시설, 전력시설 등 건설업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주거목적이 아닌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목적의 건축구조물을 의미함
 - 무형고정자산투자 자본재는 운수서비스, 소프트웨어, 공학관련서비스 등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의 형태로 공급되는 자본재를 의미함

○ (연구방법) 설비투자 자본재(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 이하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및 부문별 수입대상국별 수입의존도를 산출

- 본 보고서에서의 '설비투자 자본재²⁾'는 한국 경제 전체 부문에서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로 정의함
 - '설비투자 자본재'는 '자본재' 중 설비투자에 사용되는 '자본재'로 한정되며 그 성격상 서비스는 제외가 됨
 - 기술적으로는 산업연관표상 제조업에서 공급(생산)되어 최종수요의 고정자본형성으로 투입되는 부문중 건설투자용을 제외한 것을 말함

- 본 보고서에서 수입의존도(수입침투율, import penetration)란 “한 경제의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 수입의존도는 수입재수요 ÷ 국내수요로 계산되는데, 국내수요는 수입재수요 + 국산재수요임
 - 기술적으로는 산업연관표상 국산거래표와 수입거래표를 통해 수입재수요와 국산재수요를 포착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 \frac{\text{수입재수요}}{\text{국내수요}} = \frac{\text{수입재수요}}{\text{수입재수요} + \text{국산재수요}}$$

2) 본 보고서의 설비투자 자본재는 2011년 기준으로 상품 부문의 국내 고정투자수요의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외되는 부문은 원자재, 부품/부분품, 건설투자용 자본재로 추정되는 품목들임. 설비투자 자본재 통계를 추출하는 과정은 「【별첨 2】 설비투자 자본재 통계 구축 과정」을 참조.

2.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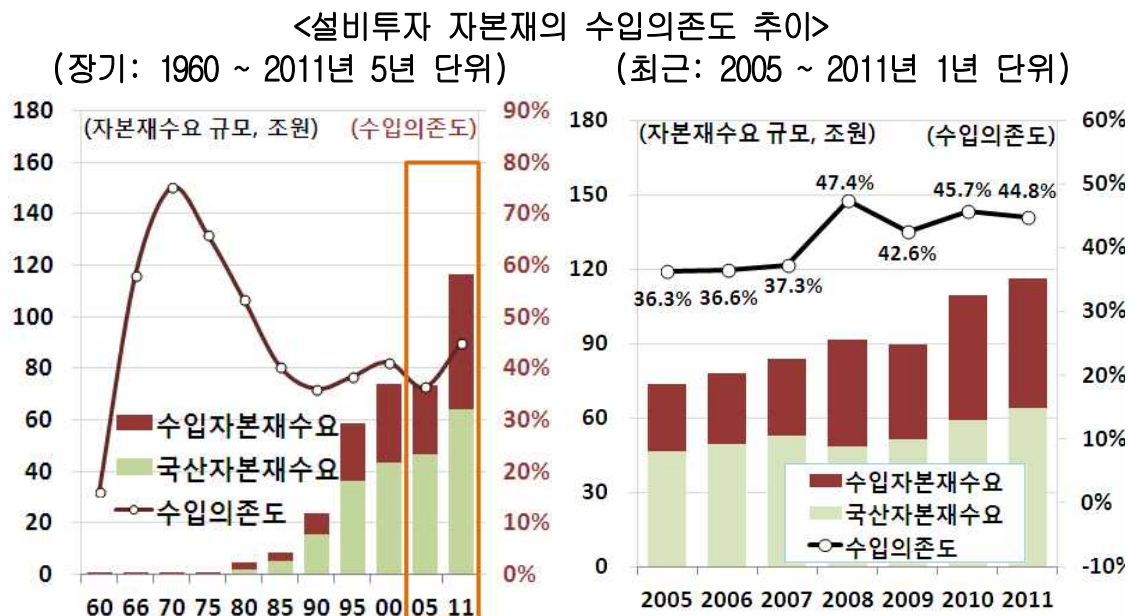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 (장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의 변화)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

- 1960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1970년 75%까지 급상승함
- 1970~90년의 기간에는 점차 자본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현재까지 40% 내외에서 횡보하는 추세임

- (2005년 이후 수입의존도 추이) 그러나 2005년 이후의 기간만을 살펴보면 수입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7% 내외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상승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2005~07년 37%내외 수준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증함³⁾
- 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국내수요는 116.3조원이며 이중 64.2조원이 국산재, 52.1조원이 수입재로 충당되어 수입의존도는 44.8%를 기록함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3) 2008년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현상에 대하여 산업연관표의 통계 분류나 집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2008년 산업연관표의 기본형식, 부문분류, 각 부문의 정의 및 포괄범위는 2005년, 2006년 및 2007년과 동일하였음 - 한국은행(2010), p.3 참조.

○ 설비투자 자본재의 4대 부문⁴⁾별 수입의존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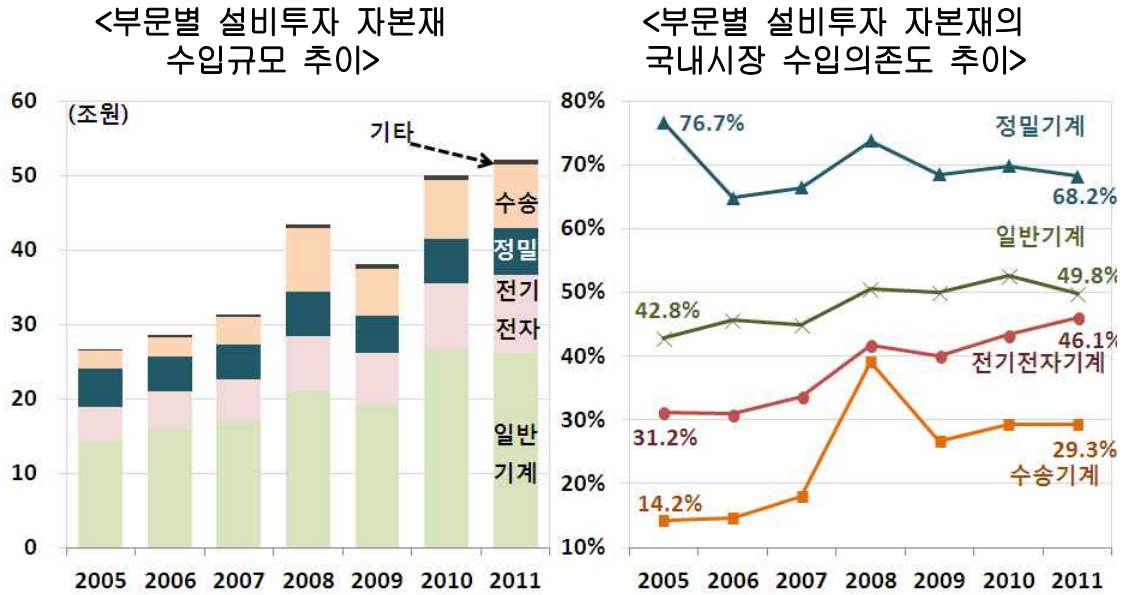
- 설비투자 자본재를 산업연관표 분류 명칭을 준용하여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의 네 부문으로 분류할 경우, 수입의 절반이 일반기계이며 2005년 이후 추세적으로 전기전자기계 및 수송기계 부문의 비중이 증가
 - 2011년 설비투자용 자본재 총 수입 규모는 52.1조원인데 이중 50%인 26.2조원이 일반기계 부문이며,
 - 다음으로 전기전자기계가 10.4조원으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기계 8.4조원(16% 비중), 정밀기계가 6.4조원(12%)의 순서임
 - 2005년 이후 부문별 수입 비중의 추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기계는 50% 내외 수준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없으나,
 - 전기전자기계는 2005년 18%에서 2011년 20%로 소폭 상승하고, 수송기계는 같은 기간 9%에서 16%로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임
 - 반면 정밀기계는 2005년 20%에서 2011년 12%로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임

-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정밀기계이며 다음으로 일반기계, 전지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순서로 분석되며, 추세적으로 보면 수송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네 부문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⁵⁾
 -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68.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다음으로는 일반기계가 49.8%, 전기전자기계 부문이 46.1%, 수송기계가 29.3%의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면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76.7%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6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임
 - 일반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42.8%를 저점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낮아짐
 - 전기전자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31.2%에서 2011년 46.1%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4) 4대 부문의 구분은 「【별첨 3】 설비투자 자본재의 부문 분류 및 해설」을 참조.

5)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추이는 「【별첨 4】 주요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현황」을 참조.

- 수송기계 부문은 2005년 14.2%에서 2011년 29.3%로 네 부문중 가장 빠른 수입의존도 상승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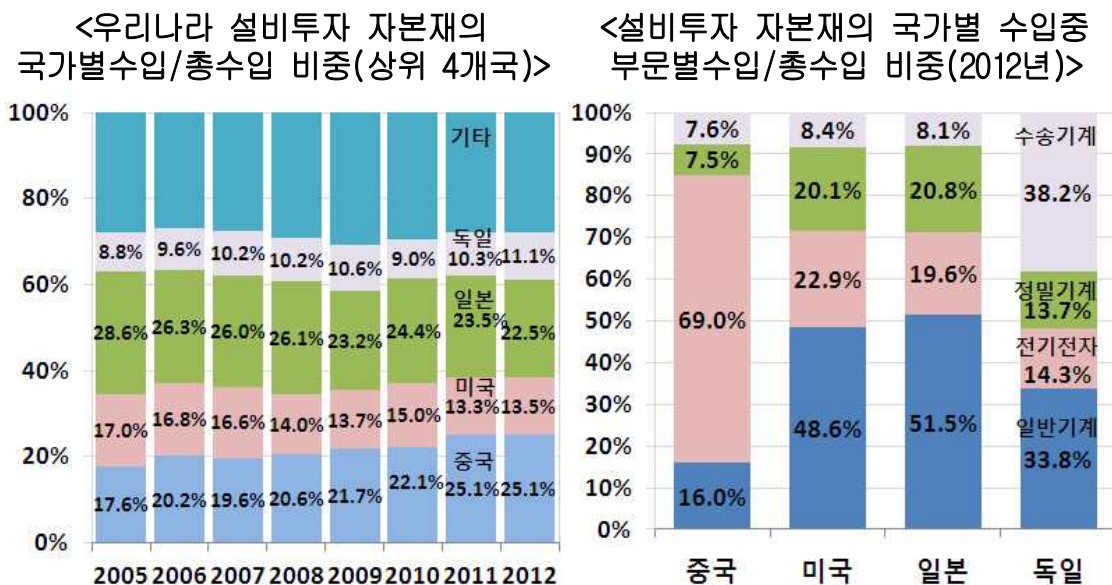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대상국별 수입비중 현황⁶⁾

-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2012년 현재 무역통계에서 포착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국은 중국이며, 「중국으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5.1%임
 - 특히,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함 (2012년 현재 일본으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2.5%로 2위를 기록함)
 - 다음으로 2012년 기준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이 13.5%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산 제품 비중이 11.1%를 나타냄

6) 수입대상국별 4대 부문별 수입비중 분류 기준은 「【별첨 5】 본 보고서 상 4대 부문과 무역통계의 MTI 코드 매칭」을 참조. 수입대상국별 자본재 수입은 비중만을 보고서에서 적시고 있는데 이는 무역통계와 산업연관표 통계의 자본재의 분류 기준에 차이가 있어 규모를 나타낼 경우 보고서의 내용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임. 참고로 보고서상 【별첨 5】 기준의 자본재 수입 규모는 2012년 기준 829억불임.

- 한편 우리나라 설비투자 자본재의 5위 수입대상국은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로부터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 총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비중은 2012년 현재 약 3%를 기록함
- 2012년 현재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 비중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절대적이고 미국과 일본은 일반기계의 수입 비중이 높으며 독일로부터는 수송기계의 수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기준 중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규모를 100%로 보았을 때 전기·전자 부문이 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세부 품목별로는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정전기기 등이 높은 비중을 기록함)
 - 한편,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 규모를 100%로 보았을 때 일반기계 부문이 48.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본산 제품의 경우에도 일반기계 부문이 5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독일산 수입 제품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수송기계로 2012년 현재 전체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중 38.2%를 기록함



자료: 한국무역협회통계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수입대상국별 통계는 4대 부문과 MTI 코드를 매칭시켜 구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 5」 본 보고서 상 4대 부문과 무역통계의 MTI 코드 매칭」을 참조.

3. 시사점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해석

- 첫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율 상승(원화 가치 절하)으로 국산재가 수입재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품의 기술력 등과 같은 비가격경쟁력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원/달러 환율 평균: 2005~2007년 평균 969원에서 2008~2011년 1,160원으로 상승
 - 다른 이유로는 국산 및 수입 자본재의 수요시장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한국은행(2004)에 따르면 주요 수출산업의 설비투자는 주로 수입자본재에 의존하고 내수산업은 국산자본재 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음
 - 즉, 금융위기 이후 수출 경기의 상대적 호조가 수입자본재의 침투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함
 - 수출의 경제적 비중(재화와 서비스 수출/GDP): 2005~2007년 평균 40%에서 2008~2011년 54%로 상승
- 둘째,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로는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 4대 부문 모두 수입의존도가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수송기계의 수입의존도가 상승하는 추세
 - 일반기계 수입의존도는 2005년 42.8%에서 2011년 49.8%로 상승, 전기전자기계도 같은 기간 31.2%에서 46.1%로 상승, 수송기계도 14.2%에서 29.3%로 상승함

- 특히,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68.2%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설비투자 자본자의 4대 부문중 가장 하이테크 부문이라 판단되는 정밀기계 가 높은 수준의 수입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어 정밀기계 부문에서의 기술 경쟁력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됨
- 셋째,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대상국별로는 중국이 2011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
 - 일본이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최대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우리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가로 부상함
 - 2012년 현재 국내 전체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5.1%임
 - 또한, 일본산, 미국산, 독일산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도 크게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음
 - 2005~2012년의 기간 동안 일본산 제품과 미국산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에 그쳤으며, 독일산 제품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냄

(2) 시사점

- 하이테크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성을 방치할 경우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인 성장 위협, 자본재의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산업의 발전 저해, 부가가치와 고용의 해외 유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국내 설비투자 자본재 시장에서의 과도한 수입의존도(7)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7) 재화의 분류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WIOD를 이용하여 2009년 한국과 일본의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의존도를 추정해 보면 한국이 40%대인 반면 일본은 20% 내외로 추정됨.

첫째, 설비투자 자본재 산업(기계산업⁸⁾, 이하 기계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중기술 국가에서 고기술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 최근 몇 년 사이 저기술 기계의 중국산 제품의 수입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어 기술경쟁력이 제고되지 않고 중·저기술을 요하는 제품군의 생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산업의 생존이 위협을 받을 것이 확실함
- 따라서 산업생산에 핵심적인 생산재임에도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및 장비를 선정하고 정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편,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일본 등 기계산업의 세계시장 기술선진국 기업의 한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적극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둘째, 기업 규모 대형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

- 중견기업의 비중이 취약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경영 컨설팅 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병역특례의 확대·대학 관련 이공계 학과에 대한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산업내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임

셋째,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시장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 정부 사업의 발주 기계 수주에서의 국산 자본재에 대한 우대, 국산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시장수요의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8) 수송기계 등 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기계산업.

- 제한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해외시장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우리의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신흥시장 진출에 주력해야 할 것임

넷째,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첨단 기계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 차세대 성장 동력의 가능성이 높아 고부가 창출이 예상되는 로봇메카트로닉스, 친환경 에코 기기, 신재생에너지 형성 및 관리 기기 등을 생산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노력이 필요함
- 한편, 나노기술, 플라즈마응용기술, 원자력 관련기술, 저탄소연소기술 등 향후 관련 기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원천 및 응용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임

<참고 문헌>

통계청(2007),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한국은행(2004), “최근의 설비투자 동향과 특징” 보도참고자료(2004년 7월 27일).

_____ (2010), “2008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 보도자료(2010년 4월 29일), 공보 2010-4-34호.

현대경제연구원(2012), “고성장-저부가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현안과 과제, 12-40.

통계청 (<http://kostat.go.kr>).

한국은행 (<http://www.bok.or.kr>).

UN Comtrade (<http://www.uncomtrade.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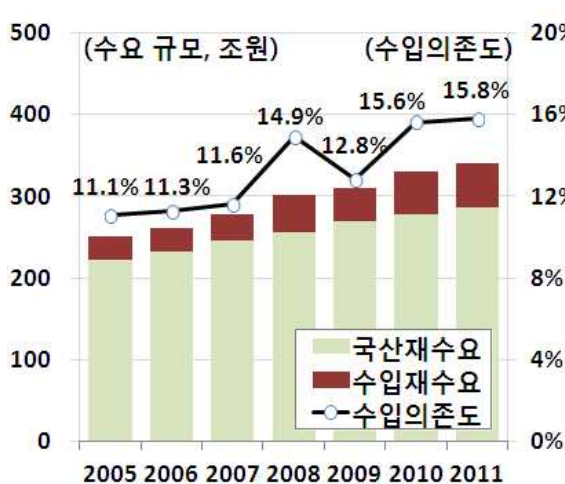
World Input-Output Databas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s
(<http://www.wiod.org/>).

【별첨 1】 자본재 용도별 수입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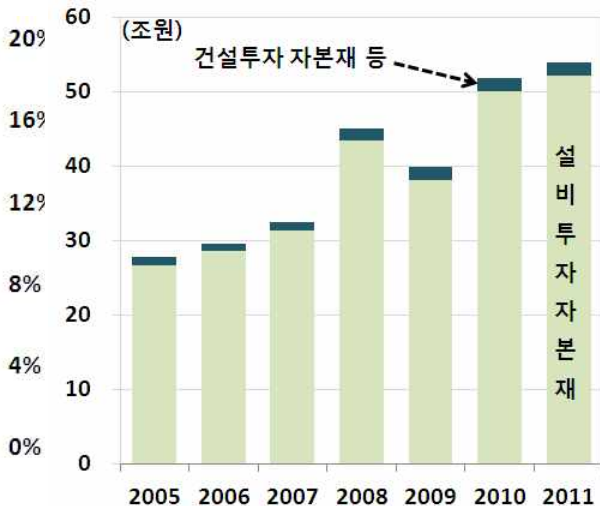
- 2011년 현재 전체 자본재의 수입규모는 국산재수요의 19% 수준, 수입의존도는 15.8%로 높지 않은 편
 - 2011년 현재 자본재의 수입재수요 규모는 54조원이며 국산재수요 규모는 286조원으로 상대적으로 국산재의 비중이 높은 편

- 자본재를 설비투자용, 건설투자용, 기타 등의 용도별 구분할 경우 수입자본재의 대부분은 설비투자용으로 분석
 - 자본재를 설비투자용, 건설투자용, 기타 등의 용도별 구분을 해 볼 경우 2011년 현재 전체 자본재의 수입규모 53.7조원중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규모가 52.1조원으로 96.7%의 비중을 차지
 - 반면, 2011년 현재 건설투자 자본재의 수입규모는 388억원에 불과하며, 무형고정자산투자가 포함되는 기타 부문의 수입규모는 1.8조원 규모에 그침
 - 이는 설비투자는 교역재인 반면, 건설투자와 무형고정자산투자 등은 비교역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산재수요가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 때문임

<자본재의 국산 및 수입 수요 규모 추이>



<자본재 용도별 수입 규모 추이>



자료: 2011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1) 수입의존도 = 수입재 ÷ (국산재 + 수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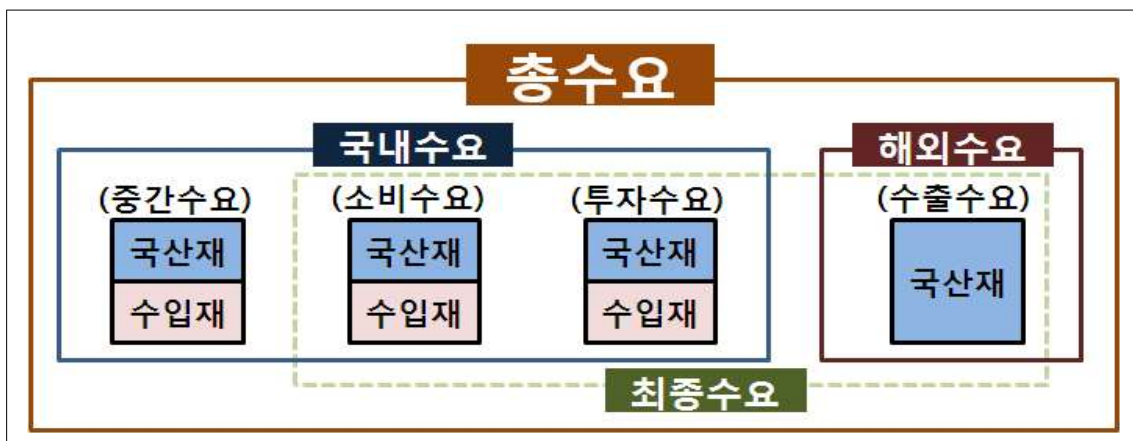
2) 건설투자 자본재 등 = 건설투자 자본재 + 무형고정자산투자 자본재 + 기타 자본재.

【별첨 2】 설비투자 자본재의 통계 구축 과정

○ 산업연관표상 수요의 구분

- 경제의 총수요는 1차적으로 중간수요와 최종수요로 구분됨⁹⁾
 - 중간수요는 중간재가 투입되는 중간수요, 소비에 사용되는 소비수요, 투자에 이용되는 투자수요로 구분됨
 - 예를 들어 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른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부자재로 사용될 경우 중간수요(이때 사용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중간재라 함)에 해당되며,
 - 같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에 사용되면 소비수요(소비재), 투자에 사용되면 투자수요(자본재)가 됨
 - 또한 그 제품이 수출에 사용되면 수출수요가 되는데, 수출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를 국내수요, 수출을 해외수요라고 할 수 있음¹⁰⁾
- 한편, 국내 수요에 충족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생산지를 기준으로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분할 수 있음

<산업연관표상 총수요 구분>



9) 산업연관표는 이러한 수요 구분이 가능한 유일한 통계임.

10) 일국 산업연관표상으로는 국내수요와 달리 수출수요는 중간수요와 최종수요 구분이 불가능함.

○ 설비투자 자본재의 범위

- 투자수요는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으로 구분되며 고정자본형성은 다시 설비투자, 건설투자, 무형고정자본형성으로 나누어짐
 - 산업연관표상으로 투자수요는 고정자본형성, 재고증감으로 구분됨
 - 그러나 고정자본형성은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자산투자 구분할 수 있으나 산업연관표상에서 명시적으로 이 세 부문을 구분하기 어려움

- 본 보고서에서 '설비투자 자본재'의 범위는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중 고정자본형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건설투자용이나 분류가 어려운 품목은 제외함
 - 고정자본형성중 설비투자를 구분하기 위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기준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그 생산된 서비스가 경제의 무형자산투자에 이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제외함
 - 건설업도 그 생산이 경제의 건설투자에 이용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역시 제외함
 - 또한, 1차산업의 경우 일부 품목의 크지 않은 금액이 고정자본형성에 사용되는 것으로 포착되나 상식적인 선에서 설비투자와는 무관하다는 가정을 함
 - 결론적으로 고정자본형성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군은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 제조업중에서도 그 생산 제품이 건설투자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거나 음(-)의 값을 나타내는 부문은 제외함
 - 참고로 이와 같이 계산된 본 보고서의 설비투자 자본재는 2011년 기준으로 상품 부문의 국내 고정투자수요의 98.9%를 차지하고 있음

○ 수입의존도의 개념 및 계산 방법

- 수입의존도(import penetration)이란 “한 경제의 내수시장에서 수입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을 의미함
 - 수입의존도는 산업연관표의 국산거래표의 국산재수요와 수입거래표의 수입재수요를 통해 계산될 수 있음

- 아래의 그림에서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 \text{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 \frac{\widehat{IF}_2}{\widehat{DF}_2 + \widehat{IF}_2}$$

- 단, \widehat{IF}_2 는 수입 제조업 제품의 고정자본형성 수요(IF_2)중 건설투자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거나 음(-)의 값을 나타내는 부문이 제외된 설비투자용 수입산 상품 자본재를 말함
- 단, \widehat{DF}_2 는 국산 제조업 제품의 고정자본형성 수요(DF_2)중 건설투자수요에 충당될 가능성이 있거나 음(-)의 값을 나타내는 부문이 제외된 설비투자용 국산 상품 자본재를 말함

<산업연관표중 국산거래표 및 수입거래표의 개요(4부문 가정)>

		중간수요부문				최종수요부문				
국산거래표		수요	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총산출
투입	수요	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수출	총산출	
1차산업	DI 11	DI 12	DI 13	DI 14	DC 1	DF 1	DX 1	Y 1		
제조업	DI 21	DI 22	DI 23	DI 24	DE 2	DF 2	DX 2	Y 2		
건설업	DI 31	DI 32	DI 33	DI 34	DE 3	DF 3	DX 3	Y 3		
서비스업	DI 41	DI 42	DI 43	DI 44	DE 4	DF 4	DX 4	Y 4		

수입거래표		수요	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투입	수요	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1차산업	II 11	II 12	II 13	II 14	IC 1	IF 1		
제조업	II 21	II 22	II 23	II 24	IE 2	IF 2		
건설업	II 31	II 32	II 33	II 34	IE 3	IF 3		
서비스업	II 41	II 42	II 43	II 44	IE 4	IF 4		

주: 산업중 전기·수도·가스, 기타 등이 생략되었으며, 최종수요중 재고증가 부문도 생략.

【별첨 3】 설비투자 자본재의 부문 분류 및 해설

- 본 보고서에서는 설비투자 자본재를 산업연관표 품목 대분류 명칭을 준용하여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의 네 부문과 이외 기타 부문으로 구분함¹¹⁾
- 일반기계라 함은 산업 생산에 사용되는 범용성인 ‘일반 목적용 기계’ 및 특정 수요를 가지는 ‘특수 목적용 기계 장비’를 포괄함 (예: 엔진, 펌프, 공작기계 등)
 - 일반 목적용 기계는 여러 산업에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범용성의 기계 및 장비를 말함
 - 특수 목적용 기계 및 장비는 특정 산업 혹은 일부 산업에만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의미함.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의 대부분은 식품, 섬유 등 특정 분야의 제조활동에 이용되지만 비제조활동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음
- 전기전자기계는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 장비를 의미함 (예: 발전기, 조명장치, 음향기기, 통신기기, 컴퓨터, 산업용 가전 등)
 - 전기전자기계는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를 기준으로 ‘전기기계 및 장치’,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컴퓨터 및 사무기기’, ‘가정용 전기기기’의 네 하위 분류로 나누어짐
 - 전기기계 및 장치는 전기의 공급과 제어 등과 관련되거나 조명설비와 같은 기계 및 장비를 말함
 -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는 방송장비, 유선전신 또는 전화용 기기, 무선 통신기기, 방송수신기 및 관련 기기, 영상·음성기록 및 재생기, 음성증폭기 등이 해당됨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는 작성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각종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자동처리하는 자동전자 자료처리 장비(컴퓨터)와 그 주변장치와 사무용 관련 기기를 말함
 - 가정용 전기기기는 냉장고, 세탁기, 전열기기 등의 전기기기를 의미함

11) 이하 해설은 통계청(2007), 「한국표준산업분류(2008)」 pp. 310~387 인용.

- 정밀기계라 함은 ‘의료용 기기’, ‘측정·제어기기’, ‘광학기기’, ‘시계’ 등 고도의 정밀을 요하는 작업에 이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말함
 - 의료용 기기는 X선 응용장치, 기계요법 및 진단용 기기, 의료용 가구 및 가구, 정형외과용 기기, 의료용 또는 이화학용의 살균기 등이 해당됨
 - 측정·제어기기는 측량·측정·시험·분석·검사·제어 등 정밀기기를 말함
 - 광학기기는 피복되지 않은 광섬유, 기타 재료의 광학요소, 사진기, 영화촬영기, 광학현미경 및 기타 광학기기 등 광학용 기기를 말함
 - 시계는 시간을 측정, 기록 또는 시각을 지시하는 기기 등을 말함
- 수송기계라 함은 원자재 및 제품의 물리적 이동에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의미함 (예: 자동차,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모터사이클 등)
- 기타는 가구, 장난감 및 운동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악기, 모형 및 장식용품 등이 해당됨¹²⁾

<본 보고서상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과 산업연관표상 해당 부문>

보고서상 부문	산업연관표상 해당 부문			
	통합대분류 (28부문)	통합중분류 (78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3부문)
일반기계	일반기계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내연기관 및 터빈	내연기관 및 터빈
			산업용 운반기계	산업용 운반기계
			공조 및 냉온장비	공기조절장치 및 냉장냉동장비
				보일러
				난방 및 조리기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펌프 및 압축기
		공기 및 액체여과청정기		
		기타일반목적용기계		
		금속가공용기계		금속절삭가공기계
				금속성형처리기계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농업 및 건설기계	농업용기계
				건설 및 광물처리기계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음식품가공기계
				섬유기계
제지 및 인쇄용기계				
	반도체제조용기계			
	기타특수목적용기계			

12) 단, 본 보고서에서 기타 부문에 대한 내용은 생략.

전기 전자 기계	전기 및 전 자기기	전 기 기 계 및 장 치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 변환장치	발전기 및 전동기
				변압기
			기타 전기장치	기타전기변환장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기타 전기장치
		영상, 음향 및 통 신기 기	영상 및 음향기기	TV
				음향기기 기타영상·음향기기
			통신 및 방송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단말기 무선통신시스템 및 방송장비
		컴퓨터 및 사무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
				사무용기기
		가정용 전 기기	가정용 전기기기	가정용 냉장고 및 냉동고
				가정용 세탁기
가정용 전열기기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정밀 기계	정밀기기	의료 및 측정기기	의료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광학기 기	촬영기 및 영사기	
기타광학기				
수송 기계	수송장비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장차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선박	선박	강철제선박
				기타선박
		기타 수송 장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항공기	항공기
			기타 수송장비	모터싸이클
자전거 및 기타운수장비				
기타	기타제조업 제품	가구	목재가구	
			금속가구	
			기타가구	
		기타 제조 업제품	장난감 및 운동용품	
			운동 및 경기용품	
			약기	
기타 제조업제품	모형 및 장식용품			

자료: 2011년 산업연관표 부문분류표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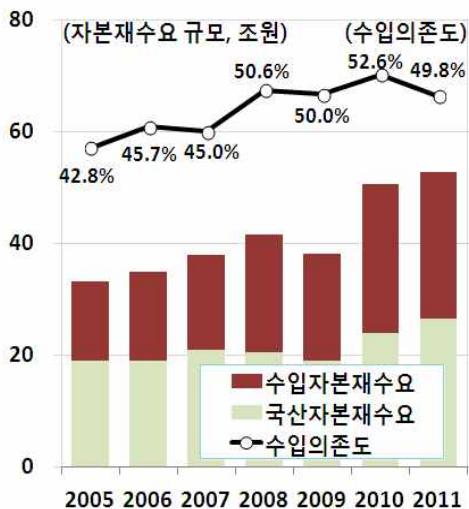
주: 산업연관표상 기본부문에서 고정투자 값이 존재하는 품목만 표시.

【별첨 4】 주요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현황

○ 일반기계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 일반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42.8%를 저점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2011년은 2010년에 비해 다소 낮아짐
 - 2011년 현재 설비투자용 일반기계 자본재의 국내 시장 규모는 52.7조원 규모이며 이중 26.2조원이 수입자본재로 충당됨
 - 일반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는 2005~2007년 40%대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50%대를 상회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는 49.8%를 기록함
- 세부 품목중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내연기관 및 터빈」의 수입의존도는 95.2%이며 다음으로는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가 64%를 기록함
 - 세부 품목중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내연기관 및 터빈」의 수입의존도는 95.2%에서 달할 정도로 거의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는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는 64%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하위 품목인 제지 및 인쇄용 기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이 70%에 근접하는 수입의존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기계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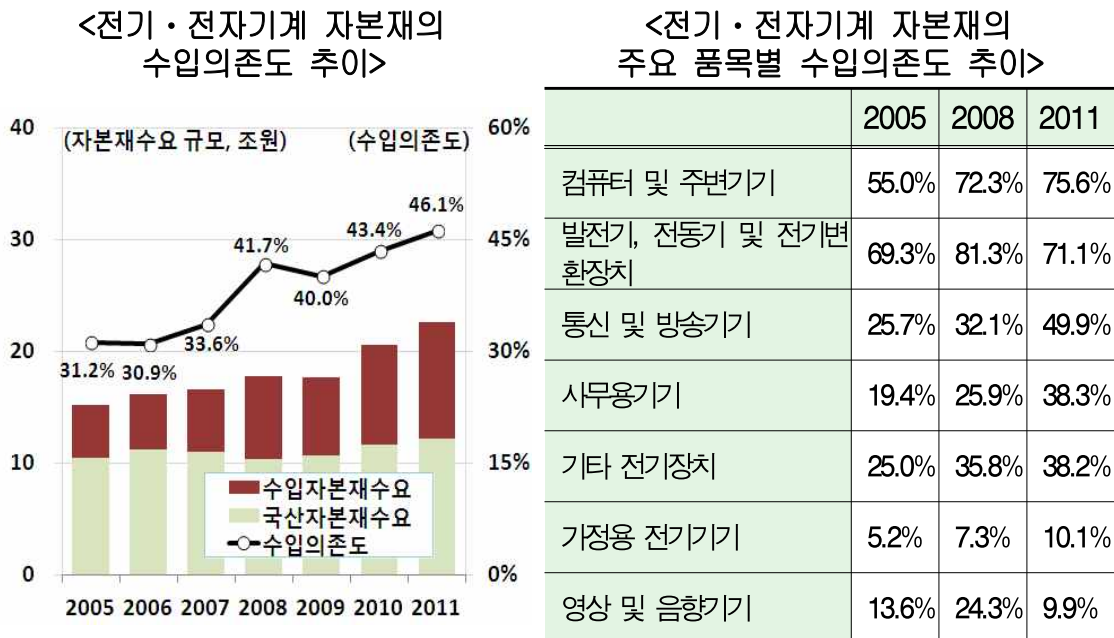
<일반기계 자본재의 주요 품목별 수입의존도 추이>

	2005	2008	2011
내연기관 및 터빈	51.3%	93.3%	95.2%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58.9%	67.0%	64.0%
기타 일반목적용기계	38.2%	46.0%	48.0%
금속가공용기계	37.4%	47.0%	47.1%
산업용 운반기계	26.5%	30.0%	27.2%
농업 및 건설기계	12.5%	21.9%	27.1%
공조 및 냉온장비	9.5%	16.7%	13.5%

자료: 각 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전기·전자기계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 전기전자기계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31.2%에서 2011년 46.1%로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현재 설비투자용 전기전자 자본재의 국내 시장 규모는 22.6조원 규모이며 이중 10.4조원이 수입자본재로 충당됨
 - 전기전자 부문의 수입의존도는 2005~2007년 30%대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이후 40%대를 상회하였으며 2011년 현재에는 46.1%를 기록함
- 세부 품목중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수입의존도가 7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71.1%)」, 「통신 및 방송기기(49.9%)」의 순서임
 - 특히,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중 「발전기 및 전동기」의 수입의존도는 91%에 달할 정도로 수입산 제품의 점유율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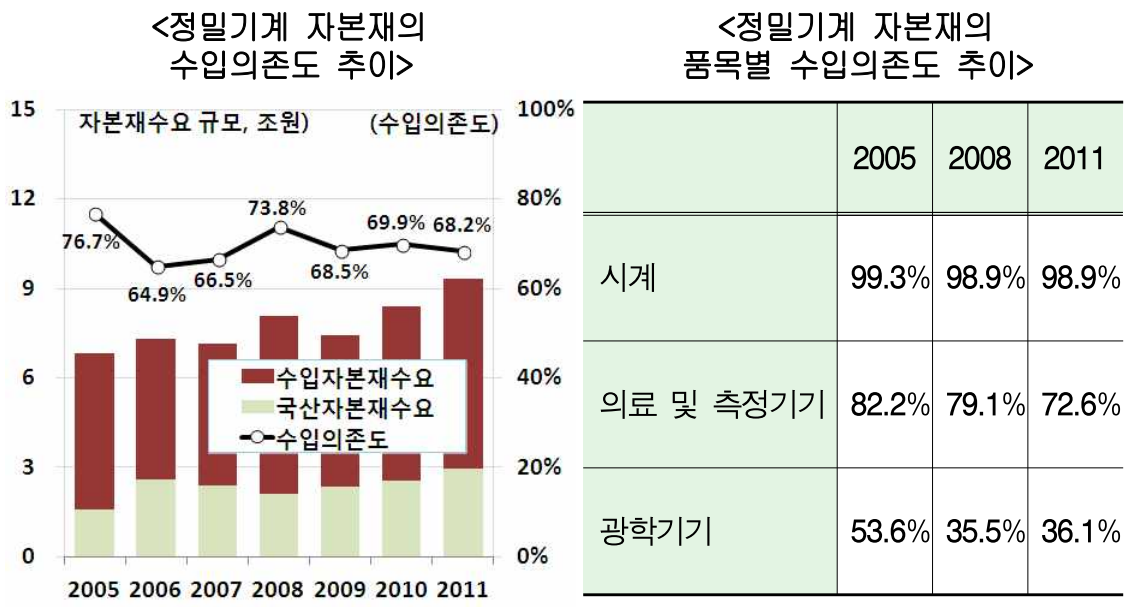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주: 주요 품목은 전기·전자기계 7개 품목중 점유율 상위 6개만 제시.

○ 정밀기계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 수입 정밀기계의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76.7%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2008년을 제외하고는 60%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임
 - 2011년 현재 설비투자용 정밀기계 자본재의 국내 시장 규모는 9.3조원 규모이며 이중 6.4조원이 수입자본재로 충당됨
 - 정밀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이후 70% 내외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이며 2011년 현재에는 68.2%를 기록함

- 세부 품목의 경우 「시계」 부문의 외국산 설비투자용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거의 100%에 가까우며 「의료 및 측정기기」 도 70% 이상의 수입의존도를 보임
 - 2011년 현재 「시계」 부문의 외국산 설비투자용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98.9%로 절대적인 수입의존도를 나타냄
 - 특히, 「시계」 부문의 수입의존도는 2005년 이후 99% 내외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임
 - 다음으로 「의료 및 측정기기」 가 72.6%, 「광학기기」 가 36.1%의 수입의존도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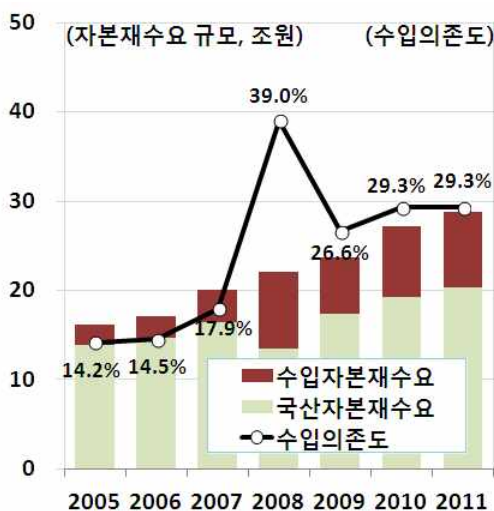


자료: 각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 수송기계 세부 품목별 수입의존도

- 수송기계 부문은 2005년 14.2%에서 2011년 29.3%로 빠른 수입의존도 상승 추세를 보임
 - 2011년 현재 설비투자용 수송기계 자본재의 국내 시장 규모는 28.8조원 규모이며 이중 8.4조원이 수입자본재로 충당됨
 - 수송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는 2005~2007년 10%대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 39.0%로 급증한 이후 하락하였다가 20%대에서 상승하는 추세임
- 2011년 현재 「선박」의 수입의존도가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항공기」,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 「기타 수송장비」도 50%를 상회
 - 「선박」의 수입의존도는 2011년 현재 84.9%이며 특히 2008년 이후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금융위기 이후 중고선 수입 가격 및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수입대상국별로는 일본산 제품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항공기」가 54.9%¹³⁾ 「트레일러 및 컨테이너」가 53.2%의 수입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터사이클이나 자전거 등이 포함된 「기타 수송장비」의 수입의존도도 50%를 상회하는 모습임

<수송기계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추이>



<수송기계 자본재의 품목별 수입의존도 추이>

	2005	2008	2011
선박	48.9%	89.2%	84.9%
항공기	59.6%	66.7%	54.9%
트레일러, 컨테이너	31.3%	53.3%	53.2%
기타 수송장비	17.0%	29.6%	53.1%
자동차	5.1%	11.4%	8.8%
철도차량	8.1%	8.8%	8.7%

자료: 각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연구원 자체 계산.

13) 이에 따라 국내 항공기 시장의 국산제품의 점유율은 약 49%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수용 제품과 항공기 부품 부문으로 조사됨.

【별첨 5】 본 보고서 상 4대 부문과 무역통계의 MTI 코드 매칭

<설비투자 자본재 교역 품목의 부문 분류 및 해당 MTI 코드>

보고서상 4대 부문	품목코드(MTI)	품목명
일반기계	711	원동기 및 펌프
	712	운반하역기계
	713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721	섬유 및 화학기계
	722	목재광물 및 유리가공기계
	723	금속공작기계
	724	식품가공포장기계
	725	건설광산기계
	726	압연기용접기 및 구조설비
	727	제지인쇄기계
	728	농기계
	729	기타산업기계
	732	반도체제조용장비
	736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745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790	기타기계류	
전기전자기계	714	사무기기
	811	유선통신기기
	812	무선통신기기
	813	컴퓨터
	814	전자응용기기
	841	회전(rotary electric)기기
	842	정전(static electric) 기기
	849	기타중전(heavy electric)기기
정밀기계	715	광학기기
	731	시계
	733	의료용기기
	734	설계제도기
	735	토지측량기
	815	계측제어분석기
수송기계	643	컨테이너
	741	자동차
	743	이륜차자전거 및 부품
	744	철도차량 및 부품
	74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자료: 산업연관표 및 한국무역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HRI**

주 원 수석연구원 (juwon@hri.co.kr, 02-2072-6235)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미국	1.8	2.8	3.7	1.2	2.8	0.1	1.7	1.1	2.5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6	-0.3	0.3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1	3.8
중국	9.3	7.8	8.1	7.6	7.4	7.9	7.8	7.7	7.5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7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4일	10월 10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65	2.68	0.03%p
	엔/달러	77.66	79.37	85.86	97.20	97.51	0.31 ¥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628	1.3517	-0.0111\$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5,073	15,126	53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4,024	14,195	17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3	2.87	0.04%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70.3	1,073.6	3.3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97.0	2,001.4	4.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0월 4일	10월 10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103.75	102.94	-0.81\$
	Dubai	104.89	92.89	107.99	104.99	105.88	0.89\$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6.45	287.38	0.93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5	137	294	431	298	322	620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6	2.2	1.4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1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